

KIA, 정용운 '등판시 팀 승률 0.833'

6번 선발등판 3승1패...승패 기록 안한 2경기도 팀 승리
평균자책점 3.77...임기영 공백 메워 팀 선발진도 안정



가히 승리를 부르는 선발 요정이다. KIA 좌완 정용운이 승리의 복덩이가 되고 있다. 선발등판하면 이기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임기영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때 구해내는 정용운의 호투는 팀 선두 유자의 절대적인 이유였다. 일등공신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선발여행이다. 정용운은 지난 6일 인천SK행복드립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등판해 5%이닝동안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제투를 했다. 5회까지 단 1피안타 무실점의 완벽 투를 펼쳤지만 6회 3안타를 맞고 3점을 내주며 흔들렸다. 두 번째 릴리티스타트와 자신의 4승째를 놓쳤다. 그러나 7회 이범호의 동점투런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정용운은 패전 위기를 벗었다. 이어 8회와 9회 각각 한 점씩 뽑는 집중력을 발휘해 5-3 역전승을 이끌었다. 전날 5회 11타자 연속 안타로 12점을 뽑고도 재역전패를 당한 충격을 완전히 씻어냈다. 정용운의 호투 덕택에 빛은 역전승이었다. 정용운은 이날까지 모두 6번 선발등판해 3승을 따냈고 1패를 당했다. 승패를 기록하지 않은 2번

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정용운은 패전 위기를 벗었다. 이어 8회와 9회 각각 한 점씩 뽑는 집중력을 발휘해 5-3 역전승을 이끌었다. 전날 5회 11타자 연속 안타로 12점을 뽑고도 재역전패를 당한 충격을 완전히 씻어냈다. 정용운의 호투 덕택에 빛은 역전승이었다. 정용운은 이날까지 모두 6번 선발등판해 3승을 따냈고 1패를 당했다. 승패를 기록하지 않은 2번

의 경기는 팀이 모두 이겼다. 정용운의 선발등판 6번 가운데 5번이나 승리했다. 승률이 8할3푼3리. 팀에게는 승리를 부르는 요정인 셈이다. 정용운이 등판하면 승운이 남달라진다. 첫 선발등판에 나선 6월 4일 대구 삼성전에서 5이닝 2실점하자 타선이 화끈하게 터지며 13점을 몰아쳐 3연패 위기를 벗어났다. 6월 11일 광주 넥센전은 7이닝 1실점 역투로 6-2 승리를 온전히 이끌었다. 정용운 덕택에 팀은 또 다시 3연패를 모면했다. 6월 17일 광주 LG전은 3이닝 6피안타 2볼넷을 내주고 3실점 조기강판했다. 그러나 팀은 한승혁을 조기에 투입하는 퀵투로 LG 타선을 3점으로 묶고 4-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못했다면 LG에게 스윙을 당할뻔했다. 정용운은 흔들렸지만 팀은 또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6월 24일 NC와의 마산경기는 5%이닝동안 3실점으로 제투를 했지만 팀타선이 터지지 않아 1-6으로 패했다. 정용운이 등판한 경기에서 유일한 패배였다. 그러나 6월 30일 잠실경기는 5이닝 2실점 호투를 했고 팀은 10-6 승리를 했다. 정용운은 선발 6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 3.77를 기록했다. 정용운이 패전증세로 빠진 임기영의 공백을 메워주자 팀 선발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정용운이 선발투수로 나선 이후 7월9일까지 33일동안 팀은 18승8패로 승률 1위를 달렸고 선두를 굳게 유지했다. '승리의 요정' 정용운이 선두 유자의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무리 오승환이 9일(한국시간)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팀의 4-1 승리를 지켜낸 뒤 포수 아더이 폴리나와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승환, 메츠전 1이닝 2피안타 무실점

18세이브...평균자책점 0.54로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이틀 만에 세이브를 추가하며 시즌 18세이브를 챙겼다. 오승환은 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7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서 4-1로 앞선 9회 초 등판, 1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하며 세이브를 올렸다. 지난 7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서 오랜 만에 세이브를 추가했던 오승환은 2경기 만에 등판해 팀 승리를 지켜내며 시즌 18세이브(1승 4패)째를 거뒀다. 평균자책점은 3.63에서 3.54로 떨어졌다. 팀의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

른 오승환은 메츠의 중심타선을 상대해야 했다. 먼저 3번 타자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를 우익수 뜯공으로 처리하며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제이 브루스에게 빗맞은 안타를 허용한 뒤 T.J. 리베라의 평범한 외야 뜯공을 우익수 스테픈 피스코티가 타구 방향을 놓치면서 연속 안타를 내줬다. 윤이 따르지 않으면서 1사 1, 2루 상황이 됐지만 오승환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루카스 두다를 좌익수 뜯공 처리한 뒤 호세 레예스에게도 목직한 포심 패스트볼을 던져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했다. 뉴스



전남의 레전드 그라운드에서 복귀하다

축구부 조성·축구인 유대강화 위해 조기축구클럽과 친선경기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지역 축구부 조성 및 지역 축구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순회하여 각 지역 조기축구클럽과 친선 축구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첫 경기로 5일 저녁 7시부터 여수 전남경기장에서 전남의 레전드인 노상태 감독, 김현수 코치, 김효일 코치, 광철고 김인완 감독을 비롯하여 이광석 GK 코치, 유소년 지도자, 사무국 직원이 참여하여 여수 전남FC 및 여천 드래곤클럽과 경기를 가졌다. 전남드래곤즈의 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복귀한 전남의 레전드들은 전성기때와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노상태 감독은 4경기를 다 뛰며 2골을 기록했고, 김효일 코치 2골 2도움, 김인완 감독(U-18) 1골을 넣으며 4경기에서 7골을 기록, 2승 2무로 경기를 마쳤다. 노상태 감독은 "오랫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kt 위즈 ← 넥센 히어로즈

1대2 트레이드에 합의해
정대현·서의태 → 윤석민

kt 위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1대2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kt는 7일 내야수 윤석민을 영입하고, 넥센은 좌완 투수 정대현(26), 서의태(20)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t는 장타력을 보강했고, 넥센은 투수력을 강화하는 트레이드다. 정대현은 올 시즌 선발과 불펜으로 12경기에 출전해 2승 7패 평균자책점 7.43을 기록했다. 서의태는 아직 1군 경력이 없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투수로 알려졌다. 넥센 고형욱 단장은 "우리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2명의 좋은 좌완투수를 얻게 됐다. 우완투수에 비해 부족했던 좌완투수를 2명이나 영입해 투수진의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고, 원활한 투수 운용도 가능해 졌다. 구단은 두 선수가 빨리 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현과 서의태는 8일 화성 히어로즈에 합류하며, 1군 선수단 상견례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kt는 장타자 영입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kt 임종택 단장은 "윤석민은 우리 팀에 필요한 중장거리 타자"라며, "팀 중심타선 강화를 통한 후반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윤석민을 영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4년 두산 베어스에서 데뷔한 윤석민은 2013년을 마치고 넥센으로 이적해 주축 타자로 활약했다. 올해 0.325의 타율에 7홈런 47타점을 기록했다. 윤석민은 7일 선수단에 합류했다. 뉴스



'팀 성적에 책임' SK 김선형 연봉 6억5000만원 동결 수용 "다음 시즌 상위권 성적 위해 최선 다할 것"

새 시즌 연봉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프로농구연맹(KBL)에 조정 신청을 했던 SK 나이츠 가드 김선형(29)이 구단이 제시한 동결안을 수용했다. SK나이츠는 7일 김선형과 연봉 4억5000만원과 인센티브 1억9500만원 등 총액 6억5000만원에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선형은 지난 시즌 같은 보수를 받고 새 시즌을 맞는다. 김선형은 2016~2017시즌 51경기에 출전해 평균 득점 15.1점으로 전체 13위, 국내선수 2위를 했다. 어시스트는 5.98개로 4위, 가로채기 1.67개로 6위의 개인 성적을 남겼다. 이 같은 성적을 이유로 김선형은 다음 시즌 8억원(7억9000만원) 가까운 보수를 요구했으나 구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약 시한을 넘겼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KBL 조정 신청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김선형이 구단의 제시안을 받아들이면서 갈등 국면을 끝냈다. 김선형이 뛰어난 개인 성적에

英 BBC "루니, 13년만에 친정팀 에버턴 이적 확정"

2004년 맨유로 이적해 13년간 559경기 253골
적해 13년간 559경기에서 253골을 넣었다. 루니는 맨유에서 EPL 5회 우승, FA컵 1회 우승,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2015~2016시즌부터 기량이 떨어지면서 주재 무리뉴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해 경기에 출장하는 일이 잦았고, 중국과 미국 등 이적설이 돌았지만 친정팀 복귀를 결정했다. 에버턴은 24시간 내 루니의 이적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